

서독 '김나지움'의 독서교육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비판적 독서훈련

최 레기네

서강대 조교수·독일어



최 레기네 교수

“비판적인 독서훈련이란 문학작품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인쇄물에 있어서의 허위, 과장, 조작, 선동 등의 현상과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비판적으로 판별하는 훈련이다.”

독일 '김나지움'(전에는 5학년부, 현재는 7학년부 13학년까지)의 독서교육은 평균 일주일에 4시간 배정되어 있는 국어시간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5학년 내지 7학년부부터 졸업반인 13학년까지 계속된다.

이때에 사용되는 이른바 '독서교재(Lesebuch)'는 각 김나지움에 소속돼 있는 국어담당 전문교사들의 정기적인 회의에서 엄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읽기, 듣기와 문장구조 파악훈련

독서교육의 실질적인 내용은 첫째, 수업시간에 텍스트를 소리내어 크게, 내용에 맞게 읽는 연습을 시킨다. 이것은 동시에 남이 말하는 것을 주의깊게 경청하는 '듣기교육'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듣기훈련은 특히 TV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를 내용에 맞게, 정확하게 읽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은 '읽기경연대회'가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 '읽기경연대회'는 매년 한번씩 각 학교 단위에서 최우수자를 선발하고, 그들 가운데서 市단위의 대표자를, 또 그들 가운데서 郡단위의 대표자를, 그 다음 최종적으로 道단위의 최우수자를 선발하게 된다. 이들 최종 선발자들은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수도인 '본'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을 받게 제도화돼 있다. 이와같이 소리내어 크게 읽는 훈련은 초급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이루어지며, 상급반에서도 예를 들어 시나 희곡의 대사읽기 등으로 계속된다.

둘째, 독서교육은 또한 주어진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급단계에서는 텍스트의 단락을 내용상으

로 판별하고, 판별된 각 단락마다 그 내용에 합당한 소제목을 붙여 이 소제목들을 모은 것이 곧 텍스트의 상세한 내용목차가 되도록 만드는 기술을 훈련시킨다. 이러한 훈련은 우선 수업시간에 공동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은 텍스트의 구조분석을 스스로 하도록 과제로 내주며, 과제는 하나하나 장단점을 지적한 뒤 총평과 평점을 매겨 돌려준다. 이와같은 훈련은 단계적으로 어려운 내용의 텍스트를 연습교재로 하여 졸업반까지 계속된다. 또한 과제の内容도 소제목을 다는 것에서 텍스트의 내용을 일정한 분량으로 축소, 요약하는 것으로 발전된다. 예를 들어 "다음 텍스트의 각 단락마다의 주 내용을 각기 두 문장 이내로 요약하라"는 식의 과제를 부여한다.

독서교육의 교재로 사용되는 텍스트 또한 단계적으로 그 내용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길어진다. 제7학년부부터는 이미 연습용의 발췌 텍스트들 이외에 현대단편소설, 고전희곡, 방송극 등 발췌문이 아닌 비교적 짧은 작품을 읽는 훈련이 시작된다. 이것들은 각각의 장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집에서 읽어오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독서범위만을 정하여 주는 경우와, 특정한 구체적 관점에서 읽도록 하기 위한 이른바 '유도질문' 들을 문제로 내어, 이들 문제들에 요령있게 답을 써보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즉,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중요한 관점들을 찾아내게 하는 훈련과 더불어 주어진 특정 관점에서 읽는 훈련을 동시에 시키는 것이다.

토론 통해 표현요령·기법 익히

이와같이 집에서 혼자 읽도록 부여된 텍스트는 다시 수업시간에 다음의 세가지 방식으로 검열 내지는 수정을 받게 된다.

1. 독서과제로 부과된 텍스트에 관한 구두 토론을 통해 상호 장단점을 발견하게 한다. 토론시의 발언은 무책임하고 주관적인 감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근거한 발언이어야 한다. "이러저러한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텍스트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나타나 있는가?"는 식의 물음이, 필요할 때마다 되풀이 된다. 이런 방법을 통해 학생들은 논문을 작성할 때 필요한 언어구사의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텍스트의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정확한 표현이 될 때까지 거듭해서 수정을 받게 된다. 이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부정확하게 대강만을 말하면 본의아니게 텍스트에 씌어진 사실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기회있을 때마다 보여주는 것이다.

2. 수업시간에서 토론과정을 통해 습득한 표현의 요령과 기법들은 새로운 텍스트의 내용분석을 독자적으로 하도록 과제를 줌으로써 계속 훈련을 시킨다.

3. 독서한 내용을 자기말로 요약하는 '글쓰기훈련'은 이와같이 집에서 혼자서 하도록 과제를 통하여 시킬 뿐만 아니라 매학기마다 일정한 회수에 걸쳐 수업시간에 지도교사의 감독밑에서 시험을 보는 형식으로도 행해진다.

처음 초급학년에서는 1시간 안에 글을 쓰는 연습을 하게 되나, 차차 그 내용과 분량이 심화, 확대되어 13학년에 가서는 6시간을 계속해서 글쓰는 시험을 보게 된다. 이 경우 자기의 주관적인 견해를 논술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텍스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므로, 이 텍스트는 물론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텍스트 내용의 요약은 주어진 세계의 관점 중 택일하여 하게 된다.

독서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비판의식

오늘날 국어시간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들의 주안점은 텍스트를 정독하고, 정독한 것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고 요약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에 있다.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경향이다.

15~20년전까지만 해도 상급학년에서는 어떠한 특정 텍스트에 관한 언급이 아닌 "~을 논하라"식의 글을 학생들에게 요구했었다. 예를 들면 "원자력은 인류를 위한 축복인가 또는 저주인가? 이에 대한 입장을 논하라", "고통은 인간의 위대한 스승이다. 고통의 숨결 밑에

서 영혼은 자라난다"는 R.Huch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이런 류의 테마들은 만 17, 8세의 학생들의 경험의 지평을 훨씬 넘어서는 것들이어서 보통의 학생들은 무슨 말을 써야할지 몰라 난감해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모범생들은 일반적인 원칙론만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들에게는 아직 이런 테마들에 관해 독자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경험도, 판단의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과정을 겪고난 60년대 말 이후로는, 일정한 텍스트를 과제로 읽히고 그 내용을 자기말로 정리하여 글로 쓰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국어시간의 주목표로 된 것이다.

도대체 독서교육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문자를 읽을 수만 있으면 각자가 읽고 싶은 책을 자기 나름대로 읽으면 그만이지, 무엇 때문에 특별히 독서방법을 훈련시켜야 하는가? 독일 김나지움 국어시간에서의 독서교육의 중요한 목표들 중의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인쇄물 특히 책 자체에 대한 '외경심'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단 한편의 책도 없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해온 학생의 경우에서 우리는 흔히 책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외경심을 목격하게 된다.)

학생들에게 텍스트란, 어느 특정한 사람에 의해 어느 특정한 사회적 여건하에서 씌어진 것이라는 점을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 학생들은 비판적인 능력, 즉 작품 텍스트의 우열을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해야 하는 것이다.

비판적인 독서훈련은 물론 문학작품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모든 종류의 인쇄물, 예를 들어 신문기사, 광고문, 정치적 내용의 연설문 등에 있어서의 허위, 과장, 조작, 선동 등의 현상과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비판적으로 판별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와같은 비판적인 독서능력은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이다. 특히 대중매체들에 의한 인쇄물의 범가 다량복사생산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비판적 독서능력은 이들 인쇄물들에 의해 조작당하지 않고 모든 차원에서의 민주적 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시민의 권리행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인 것이다.